

국어과 교육의 변화

천 경 록*

1. 서 론

국어과 교육은 변하고 있다. 그 변화가 매우 본질적이고 급박한데도 불구하고 실상 변화의 원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국어과 교육을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교사 자신도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국어과 교육은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히 어떻게 되겠지 하는 상태로 하루하루의 일상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의 언론 보도를 보면 수학 능력 시험으로 대학 입학 제도가 바뀐 후에도 이 시험에 대한 대비를 위한 학습 지도는 산발적인 방향으로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고 있으나,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현실을 발견하게 된다.

국어과 교육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본 소고에서 정확하게 추적하는 것은 필자의 능력과 지면의 제약으로 불가능한 문제이겠지만 아쉬운 대로 이러한 변화의 일부를 점검해 봄으로써 함께 생각할 기회를 갖고 이 방면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한다. 국어과 교육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기회가 있는 대로 많이 토론하여 일종의 논쟁을 일으키는 것도 한 방법

* 한국교원대 박사과정

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 글은 그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국어과 교육의 변화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과학철학자 토마스 쿤(Kuhn)이 사용한 '패러다임(paradigm)의 변화'라는 용어를 인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쿤은 과학 발전 역사를 "과학 혁명(1) →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는 정상과학의 전통 수립 → 변칙성 및 정상 과학의 위기의 출현 → 과학혁명(2)"로 설명했다.¹⁾ 그는 과학 발전의 역사가 수세기에 걸친 과학자들의 연구 업적의 단순한 누적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변화를 수반하는 질적인 변화라고 보고 있다.

현하 진행되고 있는 국어과 교육의 변화는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부를만 하다. 물론 이 말은 지금은 비유적 차원에서 쓰고 있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지금 상태에서 국어과 교육이 하나의 학문(과학)으로 성립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엄밀한 자연과학에서 출발한 용어를 성립 단계에 있는 학문에 적용하기가 조심스럽다. 그러나 학문은 현실의 문제를 과학화하는 것이라고 단순화시켜 본다면, 현실의 언어 교육과 언어 발달의 문제는 과학적 해결을 절실히 기다리고 있다. 다음 절에서는 구체적으로 국어과 교육에서 어떠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지 주요한 몇가지 관점을 살펴 보겠다.

2. 변화의 양상

1) 결과 중심에서 과정 중심으로

우선 학습의 강조점이 결과에서 학습의 과정으로 바뀌었다. 이 변화는 국어과 교육뿐만 아니라 전 교과에 다 적용되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우선 학습의 개념이 달라졌다. 어떤 내용을 결과적으로 알게 되었다면 학습이 일어났다고 보는 견해에서, 어떻게 학습이 일어났는지 그 과정을 중시

1) 토마스 쿤, 조성(역), 『과학혁명의 구조』(서울: 이화여대출판부), p.3

하게 되었다. 이것은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인지 심리학으로의 변화가 주원인이었다. 이 점을 읽기의 경우를 주로 하여 살펴보자.

지금까지의 읽기 지도는 읽기 이해의 과정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다. 과거의 읽기 이론은 독자가 인쇄된 문자를 정확하고 유창하게 낭독(해독하기)만 하면 글의 이해는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음독 지도를 독해 지도로 생각했다.²⁾ 그러나 소리내어 읽었다고 독해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국민학생이 어려운 경제학 서적을 소리 내어 읽을 줄 안다고 해서, 이 학생이 그 책을 이해한 것은 아니다. 이들은 이해의 복잡한 과정을 몰랐다.

읽기가 텍스트의 의미 이해를 수반한 행위라는 것을 깨닫자마자 이해의 과정을 따지게 되었다. 읽기는 텍스트와 독자가 상호작용해서 의미를 구성하는 복잡한 사고 과정이라고 새롭게 정의되었다.³⁾ 이해는 뇌에서 진행되는 사고 과정으로 직접 관찰하기가 어렵다. 새롭게 읽기를 설명하려는 이들이 이해를 포함할 수 있었던 것은 인지 심리학의 대두 때문이다.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이 이해의 영역⁴⁾을 배제한 이유는 그것을 직접 관찰하기가 곤란하였기 때문이었다.

새로운 이론은 읽기의 과정을 강조하였다. 그 결과 읽기를 '읽기 전 단계, 읽는 도중의 단계, 읽은 후의 단계'로 나누어 단계별로 지도하게 되었다. 5차 교과서 읽기 단원의 배열이 '단원의 길잡이→ 읽기 제재(학습활동 포함) → 단원의 마무리'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읽기의 과정이 중시되어 반영된 결과이다.

2) Robinson et al(1990), *Reading comprehension instruction 1783-1987 : A review of trends reserch*. Newark : IRA. p.4.

3) Anderson, R.C. et al.(1985), *Becoming a nation of readers*, NIE. p.7.

4) 여기서 이해는 텍스트를 대상으로 한 이해를 말한다. 행동주의 심리학에서도 무의미 철자나 짧은 단어를 가지고 이해의 과정을 탐구하였으나 문장 이상의 텍스트를 다루지는 않았다.

2) 교사 중심에서 학생 중심으로

교수-학습의 역할 수행에서 학습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과거 교사 중심의 수업에서 교사는 학습자가 수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어쨌든 제시하고 던져 주기만 하면 무엇인가 되겠지 하는 심정으로 수업에 임했다. 교사는 보다 많은 내용을 전달해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 했다. 그래서 각종 참고서와 문제집에 나오는 내용을 교재의 여백에다 뺄뺄하게 적은 다음 하나라도 더 전달하려고 했고, 이러한 전달의 기능이 뛰어난 교사가 훌륭한 교사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교사가 가르쳤다'는 것이 학생의 학습에 대한 충분 조건이 되는 지 반성해야 한다. 단지 가르치기만 하는 것으로 교육은 완성되지 않는다. 지금은 교육의 중심이 학생에게로 왔다. 우선 명칭에서도 교사의 '수업(Instruction)'보다 학습자의 '학습(Learning)'에 더 많은 강조점을 두게 되었다. 그리고 교수 전략보다 학습자의 학습 전략 개발이 중심에 놓이게 되었다.⁵⁾

국어과 교육에서는 이 영향으로 학습자가 보다 많이 실제 언어 사용 기회를 갖게 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예를 들어, 음성 언어 교육에서 학생들에게 말할 기회를 확대하여 주고, 교사의 말은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소규모 단위의 토론, 토의, 대화, 연극, 역할 놀이, 즉흥 연설 등 다양한 형식의 말하기에 학생들을 참여 시킨다.

3) 언어 내용 지식보다도 언어 사용 능력을 중시

과거 국어과 교육은 과연 국어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 않은 채 문법이나 언어학 지식을 가르치거나, 국문학 지식을 주로하여 가르쳐 왔다. 1차에서부터 5차에 이르기까지 교육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언어

5) 박경숙 외(1989), 「학습전략 훈련 프로그램 개발 연구」,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 보고서.

사용 기능 신장을 국어과 교육에서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었는데도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아이러니이다.

국어과 교육에서 계속된 내용학적 지식 강조는 언어 교육으로서 국어과 교육의 본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국어(언어)가 무엇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는 데서 해결될 수 있다.

언어는 의사소통의 도구이다. 국어학이나 국문학에 관한 지식이 아니다. 물론 국어학이나 국문학에 대한 지식이 국어 사용 능력의 배경 지식으로 전혀 쓸모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국어과 교육의 내용 영역 체계를 어떻게 수립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아직도 그 해결을 보지 못한 채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⁶⁾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언어 교육의 본질을 언어에 관한 내용적 지식의 교육으로 생각하지 않고 언어 사용 능력을 신장시키려는 쪽으로 변화해가고 있다. 지나친 내용학적 지식으로 국어과 수업이 전개될 경우 언어 사용 능력의 신장은 무시되고 소홀하게 되어 본말이 전도될 가능성이 크다.

4) 배경 지식의 사용과 상위 인지의 사용

읽기에 있어서 배경 지식이 읽기 능숙도에서 결정적 요인임이 밝혀지고 나서 국어과 교육에서는 학생들의 배경지식을 활성화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배경지식의 역할은 독해에서 절대적이다. 예를 들어, 경제학 전공의 대학원생과 국문학 전공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경제학' 내용의 글을 읽게 했을 때, 국문학 대학원생보다 경제학 대학원생이 더 빨리 정확하게 이해한다. 이것은 사전 지식이 독해에서 결정적인 변수가 됨을 보여 준다. 이것은 사전 지식이 있는 학생이 그렇지 못한 학생보다 독해를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따라서 앞으로는 어떻게 독자의

6) 국어과 교육의 내용 영역의 관계는 체계적인 고찰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본고의 직접적인 관심사가 아니라 깊은 논의는 하지 않는다.

사전 지식(prior knowledge)을 읽기 과정에서 활성화시키도록 조장할 것인가가 연구되어야 한다.

배경 지식을 강조하는 것과 더불어 독자의 '상위 인지(metacognition)'의 사용을 강조하는 것도 주요한 변화의 하나이다. 앞에서 말한 '배경 지식'과 같은 것을 '인지(cognition)'라고 하는데, 상위 인지란 이러한 인지를 조절하는 또 다른 인지를 말한다. 즉, 사람은 독서나 문제 해결, 의사 결정과 같은 인지적 노력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할 때, 자신이 제대로 일을 처리하고 있는지 자기 점검(self-monitoring)을 하기도 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도 한다. 이처럼 자신의 지식 그 자체에 관한 지식을 상위 인지라고 한다.

실제로 읽기에서 일정한 자기 점검 훈련을 연습한 피험자가 비교 집단보다 의의 있는 읽기 능력의 차이를 보여주었다는 결과가 보고 되고 있다.⁷⁾ 읽기에서 상위 인지의 사용을 보여주는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는 학습자로 하여금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자기의 독해 과정을 스스로 점검해 보는 방법이 있다. 앞으로의 국어과 교육에서는 이러한 상위 인지를 강조하고 학습시키는 수업이 점점 많아지게 될 것이다.

국어과 교육은 위에서 든 것 이외에도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읽기 교육에서는 효과적인 질문을 사용하기, 읽기와 쓰기의 통합 지도, 어휘 지도의 강조, 학습 내용의 체계적 선정 등이 있다.

쓰기 교육에서는 쓰기의 과정을 중시하는 점과 완결된 글쓰기를 요구하는 것, 쓰기에 있어서 작문 과제를 의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음성 언어 교육에서는 언어가 사용되는 목적과 상황, 청자에 대한 고려가 중시되며, 들리기(hearing)와 듣기(listening)를 구별하고, 듣기와 읽기의 과정을 구별하는 점, 학생들에게 보다 많이 말할 기회를 준다는 점과 다양한 형식의 말하기에 참여시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7) Brown, A. L.(1980), "Metacognitive development and reading." In R.J. Spro, B.C. Bruce, & W. F. Brewer (Eds). *Theoretical Issues in Reading Comprehension*. Erlbaum.

3. 변화의 배경

1) 심리학의 변화 : 인지 심리학의 발전

국어과 교육의 변화는 심리학의 사조가 바뀌는 데서 큰 영향을 받았다. 1915년과 1950년대 사이의 심리학은 행동주의 심리학이 지배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1950년대에 들어오면 인지 심리학이 등장하게 된다(Singer, 1990, p.4). 행동주의 심리학에서는 행동을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며, 행동주의 심리학의 신봉자들은 '사고'와 같은 것은 직접 관찰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심리학의 영역에서 제외하고 말았다. 따라서 행동주의 심리학 시기에서 사고에 관한 연구는 별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많은 행동은 사고와 관련시키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었으며, 특히 194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컴퓨터 과학의 발달이 주목할 만한 의미를 갖게 되었는데, 컴퓨터 과학자들은 심리학자들에게 인간의 사고의 주요한 비유물을 제시하게 된다. 컴퓨터는 인간 존재와 마찬가지로 정보를 해독하고 저장할 뿐만 아니라, 조작하고 재인출하기 때문에 이에 고무된 심리학자들이 인간의 사고를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인지 심리학이란 바로 사고의 기본적인 과정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지각, 기억, 주의 등이 포함되고 이러한 것을 종합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의사 결정과 문제 해결과 같은 심리적 과업이 수행된다. 이 사고의 연구에서 언어의 사용은 빼놓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 연구가 발전하게 된 것이다.

2) 언어학의 변화 : 생성 문법과 텍스트 언어학

언어학에 있어서 구조주의 언어 이론에서 생성 문법으로의 변화를 들 수 있다. 구조주의 언어학자들은 언어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을 언어의 기술(description)에 두고 있었다. 이들은 음성학, 음운론, 통사론, 의미론 등

의 영역을 설정한 후 언어의 다양한 세부 항목을 기술했는데 그들은 그들의 가장 중요한 활동을 문법적인 문장과 비문법적인 문장을 구별하는 기준을 발견하고 설명하는 데 두었었다.

그러다가 1950년대 들어서서 촘스키가 이끈 생성 문법은 언어 연구의 주력을 단순한 언어의 기술에서 언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와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competence)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심층구조에서 표면구조를 변형시키는 변형 규칙의 논의는 같은 의미를 다양한 언어 형식을 통해 표현할 수 있다는 데 대한 이론적 지원을 함으로써 심리학자들이 접근하기가 난감했던 의미 문제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유용한 틀을 제공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필모어의 격문법도 영향을 주었다(Kintsch, 1974).

언어학상의 중대한 변화의 또 다른 측면은 텍스트 언어학의 등장이다.⁸⁾ 촘스키까지만 해도 언어 연구의 주 대상은 문장이 최대 단위였었다. 물론 화용론 분야와 고전적 수사학 이론에서 텍스트를 연구하였으나 언어 교육학자들에게는 주목받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유럽의 언어학자들에 의해서 문장 경계를 넘어선 텍스트, 대화 등을 단위로 한 텍스트 언어학이 등장함으로써 언어 연구가 가속화되기 시작하였다. 국어과 교육의 입장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문제는 어느 한 문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텍스트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3) 컴퓨터 과학의 발달 : 인공 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현대의 과학은 컴퓨터 과학자들이 주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40년대부터 등장한 컴퓨터 과학의 목표는 생각하는 컴퓨터를 만들어 내려는 데 있다. 이것이 제5세대 컴퓨터로 불리는 '인공 지능'이다. 이 컴

8) de Beaugrande, R.(1985), "Text linguistics in discourse studies." In T.A, van Dijk(Ed). *Handbook of discourse analysis* (vol 1). London : Academic Press.

퓨터는 단순히 계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생각하여 문제를 해결하듯이 다양한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 중에는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컴퓨터도 목적으로 하고 있다(이정모 외, 1989). 실제로 공원같은 데서 길 안내를 하는 컴퓨터는 이미 실용화 단계에 들어섰다.

국어과 교육에서 컴퓨터 과학이 의의 있는 이유는, 비록 컴퓨터 과학자들이 아직 인간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고등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지는 못하였다고는 해도, 이러한 시도으로써 인간의 언어 사용과 언어 습득의 문제를 해결하는 단서를 찾게 되고 언어 교육자들에게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언어 교육자들은 언어를 이해하려면 그 언어 내용에 대한 배경 지식의 유무가 언어 이해에 결정적임을 밝혀 냈다. 이 이론은 스키마(scheme) 이론이라는 이름으로 정리되어 가고 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심리학, 언어학, 컴퓨터 과학 이외에도 철학, 신경과학, 인류학 등의 제학문은 인간의 인지의 문제를 다양한 영역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하여 '인지 과학'이라는 학제간의 연구로 형성되어 가고 있고⁹⁾, 언어 교육도 이들 이론으로부터 많은 시사를 받고 있다.

4) 화법 이론의 변화 : 인간 관계적 화법 이론의 등장

국어과 교육 중 특히 말하기/듣기 교육은 음성 언어 교육인데, 음성 언어 교육의 배경은 의사소통이론에 입각해 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의사소통(communication)의 개념이 지속적으로 변화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이론의 변화는 국어과 교육, 특히 음성 언어 교육에 영향을 주어왔는데 그 변화는 다음과 같다.

화법이론의 가장 고전적 이론은 '수사학적 관점'이었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거슬러 올라 간다. 이 관점에 따르면, 말하기의 주요 목적은 보다 효과적인 정보 전달과 설득에 있다. 수사학적 관점은 말의 내용보다는 그 효과적인 수단을 강조하므로 말을 잘하는 것이 오히려 흥미

9) 이정모 외(1989), 『인지 과학』, 서울 : 민음사.

되게 하기 쉽다. 흔히 말잘하는 사람을 사기꾼, 빨갱이, 약장수 등으로 연상하게 되는 것은 수사학적 관점의 부정적인 측면이다. 말하기 교육 하면 흔히 웅변을 생각하는 것도 말하기 교육을 수사학적 관점으로만 보는 시각의 한 단면이다(한철우, 1993). 이 관점은 듣는 사람을 제외시키는 화자 중심의 일방적인 의사소통이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의사소통이 일어났다고 볼 수 없다.

두번째 관점은 기계적 의사소통이론이다. 이 방법은 말하기를 화자의 일방적 의사소통으로 보지 않고 화자와 청자의 쌍방적 행위로 본다. 말하기를 화자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메시지가 투입되고 청자로부터 산출되며, 다시 화자에게 피드백되는 의사소통의 전과정을 고려한다. 그러나 이 관점은 지나치게 기계적이며 효율성을 강조한다. 이 관점의 배경은 1940년대의 정보 통신이론과 컴퓨터 과학이었다.

끝으로, 인간관계적 화법 이론(relational speech communication theory)이 나타났다(Whitman & Boase, 1983, 19-21). 이 모델은 2차에 걸친 세계 대전 이후의 인간성 상실에 직면한 현실에서 정보의 일방적 전달이나 효율성 추구에 싫증은 느낀 이론가들이 인간의 자아 실현에 중점을 두고 이론화한 관점이다. 이 관점에서는 화자와 청자의 인간 관계를 중시하며 말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중요시한다. 말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말하는 사람은 감정을 가진 살아 있는 생물임에 유의한다. 화자가 메시지를 발한다고 해서 그것이 청자에게 기계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다. 같은 사람에게 같은 말을 하더라도 말하는 상황이나 듣는 사람의 당시 감정 상태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도 있고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

인간 관계적 화법이론에 의하면, 말하기란 더 이상 설득의 도구가 아니라 자아를 실현하는 과정이며, 말하기가 어떤 정보의 전달로 이해되기보다는 말한다는 과정 그 자체이다. 이 관점에 의한다면, 앞으로의 음성 언어 교육에서는 화자나 청자 어느 일방을 강조하기보다 화자 청자가 동시에 강조되어야 하며, 말하기에 대한 인식 자체가 말이란 설득의 도구가

아니라 자아를 실현하고 소외를 극복하며 문화를 창조하는 유용한 도구로 이해되어야 한다.

4. 변화에의 대응

이상에서 필자는 국어과 교육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깊고 큰 변화를 수반하고 있음을 살펴 보았다. 이 변화는 앞으로 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를 줄 것으로 생각된다. 굳이 토인비의 논리를 들먹이지 않아도 우리는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고 대비하는 사람이야말로 미래를 잘 대처할 것이므로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국어과 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주요한 당사자의 입장을 살펴 보려고 한다. 그러나 이 절의 논의는 하나의 담론적 수준을 넘을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먼저 국어과 교사들은 자신들이 매시간 수업 시간에 임해서 하고 있는 작업이 무엇인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자신들이 하고 있는 교육 행위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의미 있게 학생들에게 학습되는지, 그리고 국어과 교육은 가능하거나 한지에 대해 회의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과 같은 이야기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한다.

“어떤 중학교 교사 한 분이 학교에서 수업의 효과를 알아 보기 위하여 한 가지 실험을 하였다. 그가 담당하는 두 학급 중, 한 학급은 종전대로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하고, 다른 학급에서는 전혀 수업을 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교과서와 참고서를 가지고 와서 자습을 하도록 하였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그 교사는 두 학급을 대상으로 시험을 보았다. 시험 문제의 내용이나 유형은 종전의 방식 그대로이다. 시험 결과는 놀랍게도 교사가 직접 지도한 학급보다 자습을 한 학급의 성적이 더 높았다(노명완, 1991).”

이 이야기는 수업의 효율성, 국어과 수업의 내용, 평가의 문제 등 여러

문제를 생각하게 한다. 국어과 교사가 진정한 전문가로서 서기 위해서는 국어과 수업에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하여 좀더 진지한 반성을 해 보아야 하고, 여기서 도출되는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현재의 모습으로서는 국어 교사들은 전문인이라고 자위하기에는 어려운 입장이다. 앞으로 국어과 교사들은 자신들이 다루고 있는 분야에 대하여 많은 토의와 토론 및 개인 연구나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여기서 나오는 결과들을 과학적으로 집적하는 작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총체적인 문제와 더불어 다소 구체적인 문제를 하나 제기하자면 편협한 도구 교과관을 극복해야 한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도구 교과를 다른 분야의 학습의 수단이 되는 문자를 습득하는 '문자 교육'으로 이해하고 있다. 만약 도구 교과를 문자 교육으로 본다면 한글 해득이 완성되는 국민학교 고학년 이후에는 더 이상의 도구 교과 교육은 필요 없게 된다.

국어과 교육을 문자 교육에 국한시키면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의 활동 중에서 말하기와 듣기와 같은 음성 언어를 제외하고 만다. 그리고 사고를 언어로 표현하고 또 언어를 통해 사고를 이해하는 고등 정신 기능을 신장시켜 줄 수 없다(문교부, 1988 : 89). 국어과 교육을 '문화 교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점을 자주 오해하여, '도구 교과'에서 국어학이나 국문학에서 다루는 많은 내용과 가치관 교육이 무시되는 게 아니냐고 반론을 제기한다.

앞으로 국어과 교육이 진정한 도구 교과가 되기 위해서는 사고 계발에 치중해야 한다. 우리는 언어 교육을 통해 고급한 '사고 교육'을 실천할 수 있다. 모국어인 국어를 통해 합리적으로 사고하여, 여타의 문제 상황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도록 도와 주는 것이 보다 본질적인 도구 교과로서 국어과 교육의 본 모습이라 생각한다.

교육 행정가들도 이러한 국어과 교육의 변화와 내용을 알 필요가 있다. 현재의 국어과 교사는 일제 시대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지금 갓 대학을 졸업하고 교단에 선 사람들까지 다양하다. 이들 각자가 지닌 교육철

학, 교육방법, 교육관은 매우 다양하다. 만약 이들 각자가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국어과 수업에 임하게 된다면 전국의 학생들이 동일한 국어과 교육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여기서 ‘국어 교육’과 ‘국어과 교육’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보통 엄밀한 교육 과정에 의해 학교에서 의도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國語科 教育’이라면, 이러한 제한 없이 국어에 관한 이해를 도모하는 광의의 교육 행위를 국어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에서 한글날 어떤 국어학자가 국어에 관한 강연을 하는 것은 국어 교육은 될 수 있지만 국어과 교육은 될 수 없다.

국어과 교육이 되려면 누구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진행되는 것은 가능한 배제해야 한다. 역사상의 어느 단계의 교육 이론이라는 것이 비록 완전하지는 않을지라도 이의 반영으로 된, 엄연히 문서로서 존재하는 ‘教育課程’은 존중되어야 하며 바로 이 교육 과정에 의거하여 국어과 교육은 수행되어야 한다. 교육 행정가들은 이렇게 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교사들은 교육과정의 존재에 대하여 무지하거나 무시하여 왔다. 이는 공교육 체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점은 국어과 교육의 경우 특히 심하였다. 교사들은 자신의 경험에 의하거나 자신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교육 행위를 해 왔다.¹⁰⁾

다행히 1995년부터 시행되는 6차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시도 교육청의 지침을 토대로 단위 학교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교사의 손으로 직접 작성하게 된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조치로 그 개정의 의도가 현장 교사들에게 잘만 전달된다면 국어과 교육은 한 단계 더 나아질 수 있다.

학습자의 입장을 살펴 보자. 학습자들은 우선 국어과 교육의 중요성을

10) 필자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국어과 교사들 사이에 교육 과정에 대한 견해 차이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때가 평가 때가 아닌가 한다. 평가 문제를 출제할 때만 되면 교사들 사이에 각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서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러한 충돌은 어느 한 개인간의 문제라기보다는 교육 과정을 의미 있게 인정하지 않는 이상 항상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가 한다.

깨달아야 한다. 앞으로 어떤 분야의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활동은 언어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언어에 의해 고급한 문화를 창조할 수 있고, 창의적인 사고를 전개할 수 있다. 우리는 언어를 배움으로 사고를 배운다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사회는 인간 관계가 더욱 소외되고 단절되는 정도가 심각해질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인간 관계를 회복시켜 주고 자아를 실현하는 것은 언어를 잘 사용함에 의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친구를 잘 사귀는 것은 올바른 언어 사용에 의해 가능하다. 언어의 주요한 한 기능으로 친교적 기능이 있는데, 타인과 잘 어울리고 사귀고 소외되지 않고 살 수 있으려면 이러한 친교적 기능을 잘 이해함으로 가능하다. 따라서 교사들은 학습자가 언어 학습에 관심을 갖도록 동기화시키는 데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학부모의 역할도 원론적인 수준이지만 국어과 교육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하고 연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학습자의 언어 발달은 가정에서의 유아 때부터부터 음성 언어를 배우고, 이의 연속선상에서 국민학교에 입학하면서 문자 언어와 체계적인 음성 언어 교육을 받기 때문이다.

4. 결 론

이상의 논의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국어과 교육은 변화를 겪고 있다. 그 주요한 모습은 학습의 과정에 대한 중시, 학습자 요인의 강조, 언어 사용 능력 중시, 사전 지식과 상위 인지의 활용 등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인접 학문의 영향이 크다. 특히 인지 심리학의 대두와 생성문법, 텍스트 언어학, 인공 지능, 화법 이론 등의 연구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어과 교사들은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며, 국

어과 교육의 개념과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교육 행정가들은 국어과 교육을 지원하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야 하고 학습자와 학부모는 언어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아야 한다.

국어과 교육은 길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짧은 역사 가운데도 진행되는 변화는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할 만한 매우 본질적이고 심대한 것임을 살펴 보았다. 그리고 이 변화는 이제 겨우 시작된 것 같다. 앞으로 이 변화가 낳을 새로운 가치를 위해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

<참 고 문 헌>

- 노명완(1991), 「국어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의 방향」, 『교육 연구 정보』 제 6호, 강원도 교육연구원.
- 노명완 외(1988), 『국어과 교육론』 서울 : 갑을출판사.
- 신헌재(1991), 「국어과 교육의 개념에 대한 반성적 고찰」, 『한국어문교육』 2집, 교원대, 어문교육연구소.
- 윤희원(1994), 「국어과 교육의 본질과 방향」, 『사고력을 기르는 국어과 교육』, 충청남도 교육청 서울 :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 이정모 외(1989), 『인지과학』, 서울 : 민음사.
- 토마스 쿤, 조성(譯)(1980), 『과학 혁명의 구조』, 서울 : 이화여대 출판부.
- 한철우 외(1993), 「중등학교 국어과 수업 방법 개발에 관한 연구」, 정주 : 교원대 교과교육 공동연구소.
- Anderson, R. C. et als(1985), *Becoming a nation of readers*. NIE.
- Baar, R. et als (Eds.), *Handbook of reading research*, New York : Longman.
- Brown A. L.(1980), "Metacognitive development and reading", In R. J.

- Spiro et al. (Eds), *Theoretical Issues in Reading Comprehension*, Erlbaum.
- de Beaugrande, R.(1985), "Text linguistics in discourse studies", In T. A. van Dijk (Ed), *Handbook of Discourse Analysis* (vol.1), London : Longman.
- Kintsch, W.(1974), *The Representation of meaning in memory*. Hillsdale, N. J. : Erlbaum.
- Pearson, P. D.(1985), *The Comprehension Revolution : A Twenty-year history of process and practice related to reading*, ERIC 253 851.
- Robinson, H. A. et als.(1990), *Reading Comprehension Instruction 1783-1987 : A review of trends reserch*, Newark : IRA.
- Ruddel, R. B., et als.(1994), (Eds.) *Theoretical Models and Processes of Reading*, Fourth Edition, Newark : IRA.
- Singer, M.(1990), *Psychlogy of Language*, N. J. : LEA.
- Whitman, R. F. & Boase, P. H.(1983), *Speech Communication*, New York : Macmillan Pub.